

# 배럴당 18달러 油價의 가능성 평가

—에너지경제연구원—

OPEC (石油輸出國機構) 가 국제원유가격을 배럴당 18달러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연 OPEC의 油價회복전략은 실현될 것인가.

油價상승은 石油수요의 감소, 非OPEC 石油생산증가, 과잉 石油在庫의 방출 등으로 OPEC 原油에 대한 구매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OPEC은 산유량을 감축해야 한다.

油價가 배럴당 18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때 세계 石油 소비는 현재보다 약 0.5백만b/d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소의 主要因은 산업체 多燃料사용 보일러의 油類 소비 감소에 있다(表-1 참조).

非OPEC 原油생산은 1.0백만b/d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北海油田에서 0.4백만b/d, 멕시코 등 開途國에서 0.6백만b/d 증가가 예상된다. 금년도의 非OPEC 原油생산은 油價폭락 때문에 과거의 상승추세(매년 약 1.0백만b/d 증가)를 벗어나 전년수준인 28.2 백만b/d에 머물고 있다. 배럴당 18달러로의 油價회복은 非OPEC 原油생산을 과거의 상승추세로 복귀시킬 것이다.

비축 石油在庫는 油價가 상승할 경우 약 0.9백만b/d 방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소비국 石油재고는 정상 수준보다 약 3백만배럴 초과된 상태이다.

이상의 수급여건은 OPEC 산유량이 2.0백만b/d 감소할 때에만 18달러수준의 油價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表-1〉 자유세계의 石油수급

(단위 : 백만B/D)

	1985	1986	1987	
			18\$/B油價	15\$/B油價
消 費	45.5 <sup>1)</sup>	46.5	46.0~46.6	47.4~48.1
O E C D	33.9	34.8	34.2~34.8	35.6~36.3
開 途 國	11.6	11.7	11.8	11.8
供 納	45.4	47.3	45.1~45.7	46.9~47.6
非 O P E C	28.2	28.2	29.1	27.9
• O E C D 生 產	17.1	17.1	17.5	17.0
• 開 途 國 生 產	8.5	8.4	9.0	8.3
• 共 產 國 的 手 拙	1.6	1.7	1.6	1.6
• 精 製 增 分	1.0	1.0	1.0	1.0
O P E C <sup>2)</sup>	17.2	19.1	16.0~16.6	19.0~19.7
• 原 油	15.9	17.8 <sup>3)</sup>	14.7~15.3	17.7~18.4
• N G L	1.3	1.3	1.3	1.3
在 庫 变 动 等	- 0.1	+ 0.9	- 0.9	- 0.5

註 : 1) 英國 石炭勞組 파업에 의한 石油特需 효과를 제외

2) 87年 OPEC의 石油供給은 非OPEC 및 재고방출에 의한 석유공급을 제외한 殘餘로서 전망됨.

3) 86年 4/4분기에 OPEC이 쿠터를 충수할 경우

하고 있다. 즉 OPEC 산유량이 15백만b/d로 하락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OPEC 여전상 산유량의 대량 감축은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이다. 그 이유는 첫째, 사우디가 減量의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우디 產油 정책은 4.35백만b/d의 사우디 생산쿼터를 확보하는 것이며, 여건이 허용한다면 쿼터증량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사우디는 지난 10월 OPEC 총회에서 自國이 그동안 희생한 代價로 쿼터증량을 요구한 바 있었다. 또 사우디는 물량확보의 견인차 역할을 한 바 있는 네트백 판매방식을 계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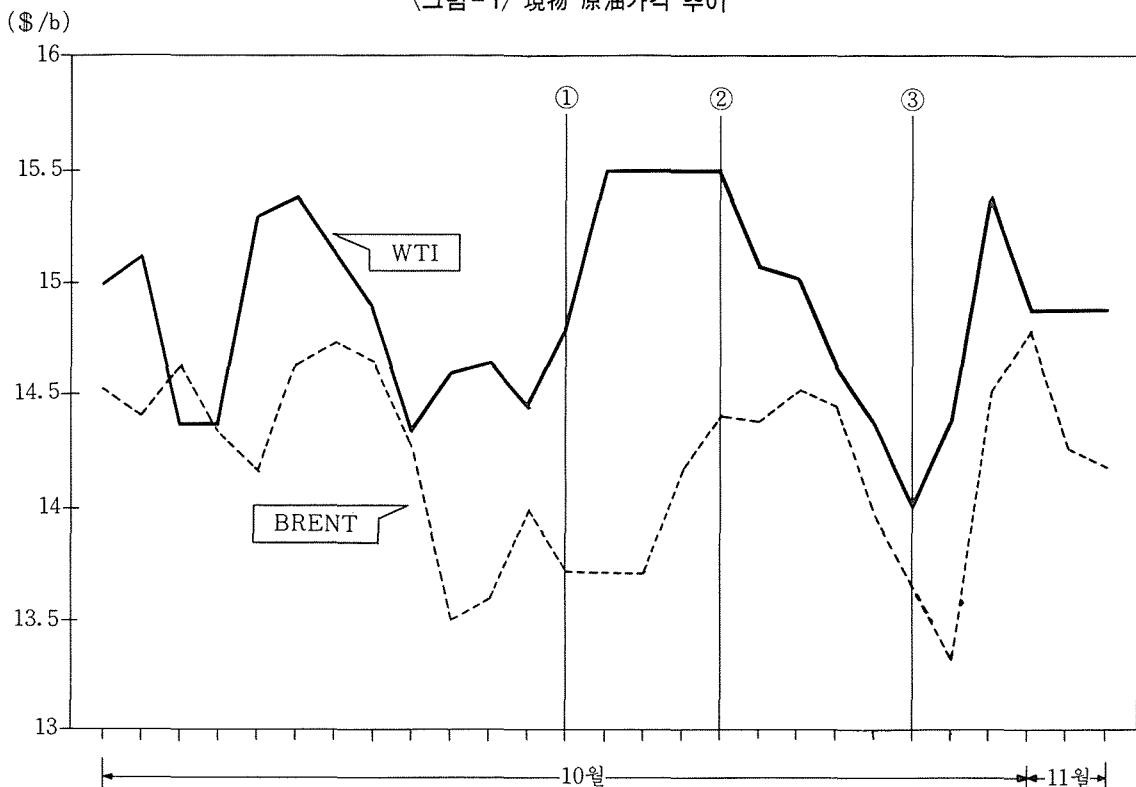
사우디가 다시 供給調節者(Swing producer)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이미 1984 ~1985년의 경험을 통해서 공급조절기능의 수행이 사우디 國益이나 OPEC油價회복에 큰 보탬이 되지 못했음을 알고 있다. 사우디로서는 非OPEC의 확고한 협약과 속, OPEC 회원국간 쿼터준수에 관한 확고한보장이 없는 한 일방적 감산 혹은 공급조절기능 수행을 허용하지

는 않을 것이다.

둘째, 감산량의 產油國別 배정에 OPEC이 합의해야 하는데, 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쿠웨이트 석유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쿼터의 합리적 배분은 OPEC이 2 ~ 3 번의 총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難題이다. OPEC內富國인 사우디, 쿠웨이트조차 쿼터증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산유국도 여러가지 이유(과중한 국내소비, 外債, 국제수지 적자)를 들어 쿼터減縮의 불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가능성은 OPEC 회원국이 현 쿼터에서 일률적으로 10% 정도 감산에 합의하는 것이다. 國別 쿼터를 새로이 조정할 필요가 없는 편이점, 감산부담을 全會員國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회원국간 상대적 위치는 불변이라는 利點, 10% 감산결과 약 20%의 油價上승이

〈그림-1〉 現物 原油가격 추이



註 : ① 10월 17일 : 사우디政府 배럴당 18달러 油價주장  
 ② 10월 22일 : 第79次 OPEC 總會 폐막  
 ③ 10월 29일 : 야마니 해임

가능하리라는 기대감 등은 일률적 減產案의 합의를 가능케 하는 요소들이다. 특히 지난 8月 OPEC 총회에서 회원국은 現쿼터의 준수(약 19% 감산해당)를 결의함으로써 50%의 油價上승을 경험한 바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전략을 구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OPEC의 잉여생산능력 등은 油價를 배럴당 10달러 수준에 끌어두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다음 OPEC총회에서 1백만~2백만b/d정도의 산유량 감축에 합의한다 해도

油價는 현수준(14달러~15달러, 그림-1 참조)에서 배럴당 2~3달러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산유량 감축에 뚜렷한 합의가 없다면 油價는 在庫의 압박과 OPEC 단결에 관한 의구심 때문에 하향세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OPEC단결에 관한 시험은 내년초 冬節期 수요가 줄어가는 시점에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油價는 11월 價格委員會 회의와 12월 OPEC 총회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

## /암/예/방/

# “생활습관부터 바꿔라”

「어떤 종류의 암이든 적어도 70%는 예방이 가능하다」

암 예방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조지프 켈렌바사(50·美國립암연구소)는 지난 11월 10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열린 「암 예방 및 환자관리 한·미공동심포지엄」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우리의 전통적 생활습관을 바꿈으로써 암 예방에 획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켈렌바사가 이날 밝힌 암 위험인자와 예방법을 간추려 본다.

### ●담배

미국 전체 암 사망자의 30%를 차지할만큼 담배는 모든 암 발생의 근원적 역할을 한다.

특히 폐암은 흡연인구증가와 함께 급격히 늘어났는데 남자의 폐암 희생자는 30년에는 10만명당 3.5명 이었으나 80년에는 70을 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각종 연구를 보면 남자의 경우 하루에 1갑(20개비) 이상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으로 인해 숨질 가능성이 최고 25배로 높으며 여성의 경우도 4배이상 높아진다. 따라서 암 희생을 막으려면 당장 담배를 끊어야 한다.

### ●음식물

음식물도 암 위험인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35%)을 차지한다.

미국의 경우 냉장고의 보급과 함께 위암의 발병률이 크게 떨어진 반면 장암이나 여성의 유방암이 여전히 많은 것은 섬유질이 적은 동물성 지방질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인에게 위암이 특히 많은 것도 짜고 맵게 먹는 등 자극성 식생활관습 때문이다.

###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로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기위해 쓰이는 아질산염이나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등도 암 유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술

술이 그 자체로서 암 사망에 차지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하지만 술을 마시면서 흡연할 경우 암발병률은 2~6 배로 증가한다.

### ●직업적 노출

암의 4%는 화학약품이나 빌암성 금속, 먼지, 섬유질, 방사선, 석면등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발생한다. 특히 이를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그 발병률은 가중된다.

### ●방사선

피부암은 태양광선중 자외선이 주범이다. 때문에 피부암을 피하려면 태양광선에 맨살로 과대노출을 금하고 피부보호제를 바른다.

### ●약품

여성 호르몬제는 여성의 자궁암이나 경부암, 혹은 유방암과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 쓰이는 DES라는 합성호르몬도 자궁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태아가 성장후 자궁암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 ●예방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암을 유발하는 이런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피함, ▲매년 정기적 검진으로 조기암진단을 함, ▲효과적 치료제의 개발 등으로 미국의 경우 서기 2000년까지는 암사망률을 현재 15%에서 8%로 줄일 수 있다.